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마태복음 —

류호성*

『새한글』은 기존 번역본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를 선별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특징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살펴볼 내용에 표제어를 붙일 것입니다. 그리스어 본문(GNT⁵)을 기본으로 해서, 기존의 번역본은 『개역개정』, 『공동개정』 그리고 『새번역』이 사용될 것입니다.

1.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語順)은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마 1:1).

그리스어 문장은 격어미가 있기에 영어처럼 어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앞으로 오게 합니다.

GNT ⁵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u>υἱοῦ Δαυὶδ υἱοῦ Ἀβραάμ.</u>
『개역개정』	<u>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u>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공동개정』	<u>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u>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장신대학교 신약학 교수. ryuheidel@hanmail.net.

『새번역』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는 이리하다.

『새한글』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
 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1.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어순으로 번역했으나, 『새한글』은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번역했습니다. 곧 ‘다윗과 아브라함’으로 기존의 어순과 달리했습니다.

1.2. 외국어 역본 참조

(1) 영어 KJV, NIV, NRS 그리고 ESV 성경은 모두 GNT⁵의 어순에 따라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으로 번역했습니다. 곧 ‘다윗과 아브라함’의 어순으로 번역했습니다.

(2) 독일어 Luther Bibel(이하 LB), Einheitsübersetzung(이하 EIN)은 ‘des Sohnes Davids, des Sohnes Abrahams’으로, BasisBibel(이하 BB)은 ‘der ein Sohn Davids und ein Sohn Abrahams’으로, 영어와 동일한 어순으로 번역했습니다.

1.3. 차이점에 대한 고찰

(1) 기존 우리말 성경은 마태복음 1:1-17을 단순히 ‘족보’로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선 세대인 아브라함이 후세대인 다윗보다 먼저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2) 마태는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앞선 세대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을 먼저 오게 해서 예수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먼저 오게 한 이유는 첫째, 유대적 특징의 ‘다윗’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는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열네 대’로 묶었습니다(1:17). ‘열넷’은 히브리어 ‘다윗(דָּוִד)’을 수치화하면 ‘열넷’이 됩니다. 곧 ‘ד’는 ‘4’ 그리고 ‘י’는 ‘6’으로, 모두 합치면 ‘14’가 됩니다. 곧 예수는 기다리던 ‘다윗’ 혈통의 ‘그리스도’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 둘째, 마태는 1:1을 마태복음의 전체 표제어로 사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신학적 논의를 전개하는 틀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창 17:5)인 것처럼, 유대 다윗 혈통의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28:19) 삼아야 합니다. 이런 신학적 틀 속에서 마태는 유대적 특징의 산상수훈(5-7장)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비유(25장)의 이야기로 마태복음을 전개했습니다.

2. ‘부정어’는 부정하고자 하는 단어 앞에 둡니다(마 10:38).

그리스어에서 부정어는 두 개가 있는데 직설법에서는 οὐ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법에서는 μή를 사용합니다. 이것의 위치는 대개 부정하고 싶은 단어 바로 앞에 옵니다.

GNT ⁵	καὶ <u>ὃς οὐ λαμβάνει</u>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u>ἀκολουθεῖ</u> <u>ὀπίσω μου</u> , οὐκ ἔστιν μου ἄξιος.
『개역개정』	또 자기 십자가를 <u>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u>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공동개정』	또 자기 십자가를 <u>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u>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새번역』	또 자기 십자가를 <u>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u> 내 게 적합하지 않다.
『새한글』	자기 십자가를 <u>받아서 떼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u> <u>사람은</u>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2.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라고 번역했습니다. 곧 십자가는 지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한글』은 ‘십자가를 받아서 떼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떼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로 번역한 것입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1) 영어 KJV, NIV, NRS 그리고 ESV 성경은 ‘anyon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me’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곧 동사 ‘take(지다)’ 앞에 부정어 ‘not’이 왔고, ‘follow(따르다)’에는 부정어가 오지 않았습니다.

(2) 독일어 LB, EIN 그리고 BB는 ‘wer nicht sein Kreuz auf sich nimmt und folgt mir nach’라는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곧 부정어 ‘nicht’를 동사 ‘nimmt(지다)’ 앞에 두었고, ‘folgt(따르다)’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3) 영어나 독일어 번역 성경은 모두 부정어 οὐ가 바로 뒤에 나온 동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2.3. 차이점에 대한 고찰

(1) 우리말 기존 번역은 부정어 οὐ가 부정하는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가 아니라(λαμβάνει), 그 뒤에 오는 동사(ἀκολουθεῖ)를 부정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는 졌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인 번역보다는, ‘따름’을 강조한 신학적 번역입니다.

(2) 『새한글』은 우리말 기존의 번역과 달리 GNT⁵나 영어, 독일어 번역본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지지 않느냐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3) 예수가 10:38을 말하는 대상은 ‘열두 제자들’(10:1상)입니다. 예수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10:1하). 그리고 열두 제자의 이름을 부르시고(10:2-4), 그들에게 천국 선포의 사명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10:5-15),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르는 위험과 그런 현실 가운데 지켜야 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10:16-39).

(4) 이런 맥락에서 예수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현실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에 있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따르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5) 10:38에서 부정어 οὐ가 나타내고자 한 것은 예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3. 역사적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마 14:3; 막 6:17; 눅 3:19).

성경 번역에 있어 역사적 사실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 사실 자체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GNT ⁵	‘Ο γὰρ Ἡρώδης κρατήσας τὸν Ἰωάννην ἔδρασεν [αὐτὸν] καὶ ἐν φυλακῇ ἀπέθετο διὰ Ἡρωδιάδα <u>τὴν</u> <u>γυναῖκα Φιλίππου τοῦ ἀδελφοῦ αὐτοῦ</u> .
『개역개정』	전에 헤롯이 <u>그 동생 빌립의 아내</u>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공동개정』	일찍이 헤로데는 <u>자기 동생 필립보의 아내</u>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는데

- 『새번역』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 『새한글』 사실은 헤롯이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다.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

3.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은 헤로디아를 ‘동생 빌립의 아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새한글』은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기존의 ‘동생’을 ‘형제’로 바꾸었습니다.¹⁾

3.2. 외국어 역본 참조

- (1) 영어 KJV, NIV, NRS 그리고 ESV는 모두 ‘his brother Philip’s wife’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입니다.
- (2) 독일어 LB, EIN 그리고 BB는 ‘der(die) Frau seines Bruders Philippus’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번역과 같은 의미입니다.

3.3. 차이점에 대한 고찰

- (1) 헤롯 왕은 10명의 아내에게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은 자신의 숙부 ‘빌립’인데, 그는 헤롯 왕과 마리아네 2세 사이에서 BC 28년경 태어났습니다. 이들 사이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살로메라는 딸을 두었습니다(마 14:6). 이 빌립은 누가복음 3:1에 등장하는 분봉왕 빌립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분봉왕 빌립은 헤롯 왕과 말다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 (2) 헤로디아는 첫 번째 남편 빌립과 이혼하고 이번에는 다른 숙부와 재혼했습니다. 그는 헤롯 왕과 말다케 사이에서 BC 25년경에 태어난 분봉왕 헤롯 안디바(마 14:1)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혼이 율법에 어긋났다고 비판한 세례 요한을 처형했습니다.
- (3) 헤롯의 첫 번째 남편 빌립과 두 번째 남편 헤롯과는 이복형제이며, 빌립이 손위입니다. 곧 이복형제입니다.
- (4) 기존 번역에서 ‘동생 빌립’의 아내라고 말한 것은, 영어의 ‘brother’를

1) 이에 대해서는 류호성, “헤로디아는 ‘동생의 아내’가 아니라, ‘이복 형의 아내’였다(막 6:17-18; 마 14:3; 눅 3:19)”, 『신학논단』 89 (2017), 163-192; 류호성, 『간추린 신구약 중간사』 (서울: CLC, 2018), 215-218 참조.

동생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문화에서는 대개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그 반대의 경우는 아주 드물기에 번역자들이 ‘동생’으로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5) 그리스어 ἀδελφός는 ‘형제’를 뜻하지, 서열이 전제된 ‘동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생’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6) 헤로디아를 ‘자기 이복형 빌립의 아내’로 표현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새한글』은 GNT⁵의 본문에 충실해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로 번역했습니다.

4. 복수의 의미는 살려야 합니다(마 16:19).

그리스어 명사는 ‘성(性), 수(數), 격(格)’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수’에는 단수와 복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단수와 복수는 의미 차이가 있기에(때로는 클 수도 있습니다.), 복수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GNT ⁵	δώσω σοι <u>τὰς κλείδας</u> (복수 대격) τῆς βασιλείας τῶν οὐρανῶν, ...
『개역개정』	내가 천국 <u>열쇠를</u> 네게 주리니 ...
『공동개정』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u>열쇠를</u> 주겠다. ...
『새번역』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u>열쇠를</u> 주겠다. ...
『새한글』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u>열쇠들을</u> 줄 겁니다. ...

4.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은 모두 단수인 ‘열쇠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새한글』은 복수인 ‘열쇠들을’로 번역했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1) 영어 KJV, NIV, NRS 그리고 ESV는 모두 복수인 ‘the keys’로 번역했습니다.

(2) 독일어 LB, EIN 그리고 BB도 복수인 ‘die Schlüssel’로 번역했습니다.

4.3. 차이점에 대한 고찰

(1) 기존 번역들은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잘했기에, 그에 대한 상으로 예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곧 한 개의 열쇠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천국 열쇠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교황으로만 전수된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대해 예수는 천국 열쇠 ‘하나’를 준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들’을 주었습니다. 곧 2개 이상은 주었습니다. 천국 열쇠가 복수라는 점은 제자들이 모두 천국 열쇠를 소유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제자들을 대표한 신앙고백으로, 이에 예수가 열두 제자 각자에게 줄 천국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대표로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베드로라는 인물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앙고백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3) 여하튼 중요한 점은 『새한글』의 문법적 번역처럼 예수께서 ‘열쇠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5. 단어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려야 합니다(마 22:9).

번역할 때, 1차 텍스트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축소 또는 과장되지 않습니다.

GNT ⁵	πορεύεσθε οὖν <u>ἐπὶ τὰς διεξόδους τῶν ὁδῶν</u> καὶ ὅσους ἔαν εὔρητε καλέσατε εἰς τοὺς γάμους.
『개역개정』	<u>네거리 길에</u>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공동개정』	그러니 너희는 <u>거리에</u>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새번역』	그러니 너희는 <u>네 거리로</u>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새한글』	그러니 <u>여기저기 주요 거리로</u>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결혼 잔치에 초대해라.’

5.1. 차이점 관찰

그리스어 διεξόδους를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네거리’로 『공동개정』은 ‘거리’로 번역했고, 『새한글』은 ‘여기저기 주요 거리’로 번역했습니다.

5.2. 외국어 역본 참조

(1) 영어 KJV는 ‘into the highways’, NIV는 ‘to the street corners’, NRS는 ‘into the main streets’ 그리고 ESV는 ‘to the main roads’로 번역했습니다.

(2) 독일어 LB, EIN 그리고 BB는 ‘auf die Straßen’으로 번역했습니다.

5.3. 차이점에 대한 고찰

(1) 그리스어 διεξόδους는 전치사 διά(통하여)와 ἐκ(~에서부터) 그리고 명사 ὁδός(길)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길에서 나와 통과하는’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서에 1회 사용되었기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 우리말 ‘네거리’는 동네 어느 곳에서 흔히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주 근접의 거리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단어를 언급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점, 또한 이 잔치를 왕이 아들을 위해 준비한 것 그리고 왕이 군대(7절)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왕실 주변의 ‘네거리’로 이해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4) ἐνὶ τὰς διεξόδους τῶν ὁδῶν은 ‘국경(the boundary ends)’을 의미합니다.²⁾ 『새한글』은 ‘국경’의 의미를 살리고자 ‘여기저기 주요 거리로’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상황에 맞게 부연 설명하자면, 왕은 나라의 전 영역에 있는 전 국민을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모든 번역 성경은 그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새한글』의 마태복음은 앞선 우리말 번역본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한 층을 더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을 따랐고(1:1), 문법적으로는 부정어의 위치(10:38)와 명사의 복수(16:19) 표현을 살렸으며, 또한 역사적 사실 관계(14:3)와 단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22:9) 번역했습니다.

2) 이에 대해서는 김태섭,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αἱ διεξοδοὶ τῶν ὁδῶν’의 해석”, 『신약논단』 21 (2014), 895-924 참조.

<주제어>(Keywords)

다윗과 아브라함, 십자가를 메지 않음, 형제의 아내, 천국의 열쇠들, 국경.

David and Abraham, Not Taking The Cross, His Brother's Wife,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Boundary Ends.

(투고 일자: 2024년 8월 21일, 심사 일자: 2024년 9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12월 18일)